



# 2021년 제1회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공모 주제: 함께 나누는 삶**

**고려대학교 교양교육원**

## 목 차

1. [교무처장상] 내가 믿는 커뮤니티 – 현재원 ..... 1
2. [교양교육원장상] 나누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 이혜원  
..... 4
3. [교양교육원장상]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 – 김상철  
..... 7
4. [교양교육원장상] 매일매일 초코바 – 최혜온 ..... 10

[교무처장상]

## 내가 믿는 커뮤니티

현재원(의학과)

『오늘 ‘싸움의 고수’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비가 많이 왔다.

아침부터 비가 많이 왔기에 대부분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내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양 쪽 발에 목발을 짚으며 비를 맞고 있었다.

눈이 딱 마주칠 때 나는 ‘아 안타까우시다, 우산을 씌워 드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산을 안 쓰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 주겠다고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에 지나쳤다.

하지만 지나친 순간, 그 분이 우산을 안 들고 나오신 게 아니라 우산이 있어도 쓰지 못하시는 것이고, 걷는 게 힘드니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해봤자 안암역이나 그 주변으로 가실 거라는 생각이 스쳤다.

아! 그 순간 주저하고 빠릿빠릿하지 못한 내가 너무 미웠다. 모르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아마 고대생일텐데, 나이도 비슷해보였는데, 거기서 손을 내밀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했다. 그 주저함에는 빨리 ‘강다짐’에서 삼각김밥을 포장해서 공부하러 가야겠다는 내 계획이 뒤틀리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학기가 시작하면서 선배들이 성적보다 너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의 모습이 내가 그렇지 못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혹시 멀리 안가시면 우산 씌워드려도 괜찮을까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되뇌었는지 모른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오늘의 일을 되돌아보고 잘 담아둔다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와서는 조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믿고 싶다. 나중에 환자를 볼 때도 이런 주저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마쳤는데도 떨리는 가슴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이번 학기에 들어와 이런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오래간만이었거니와, 지금의 느낌과 생각을 놓아주지 않기 위해 펜을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고파스’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그 분’이 우연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내 글을 확인할 거라는 기대 때문은 아니었다. 이상하지만 나는 그 때 이 글을 누군가와 나누어야만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때는 몰랐었는데, 그 날 내 가슴을 관통했던 ‘그 분’의 눈빛, 강렬하면서도 기묘하게 낮익었던 그 눈빛은 내 눈빛이었다. 비가 세차게 내려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비를 맞으면서 갈 길을 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눈에서 내가 찾은 것은 무기력이었다. 이번 학기에 나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학점을 전부로 여기는 좁은 커뮤니티에 살고 있었고, 매 시험마다 열심히 해도 아쉬운 성적이 반복되면서 나는 자기의심으로 점점 해체되어 갔다. 지금껏 내가 믿어 왔던 세계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 그리고 내가 속한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내가 나의 일부를 부정하고 바꾸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순간 헤어나오고 싶어도 헤어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니, 모든 것,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까지 전보다 3배는 더 힘들었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았다. 동기들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 감정의 무게를 나누는 것이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꾸준히 가라앉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그리고 정말 까무러치게 놀랐다. 알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글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실시간으로 조회수가 미친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숫자들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글들이었다. 댓글로 사람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비 오는 날 타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고 싶었다는 단순한 글이, 하나의 플랫폼처럼 되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를 도와준 이야기, 도와줄 뻔한 이야기,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받았었던 사연을 나누었다. 목발을 짚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바뀌었어도 천천히 가라고 소리치는 앞의 차량, 시각장애인 할머니를 가시려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 마음이 조금했던 적이 아직까지 후회로 남으신 분, 폐지 할아버지께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 드린 학생,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인류애가 내 마음에까지 전달되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나의 생각을 하였으며, 서로를 응원해주고 있었다.

만칠천명. 만 칠천명이 내 글을 읽었고, 나는 내 멋대로 이 작은 커뮤니티에게 내가 아주 잠깐동안 어떤 따뜻함이나 선한 영향력을 불러 일으켰다고 믿기로 했다. 그것보다 더 가슴 떨리는 상상은 없었다. 글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람들에게서 격려나 응원, 그리고 조금 아플 수 있는 비판이나 책망까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고마움에 대해서는 조금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누군가 나의 글로 위로를 얻고 따뜻함을 느꼈다는 사실, 그리고 타인이 내게 고마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뒤흔들었고,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나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것 같다. 그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나도 잘하는 게 있고 이 사회에서 쓰임 받을 곳이 있을 것을 다시 믿기 시작한 것은 그 날부터였다.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나오는 말이다. 나는 비 오는 어느 날



한 분을 도와 드릴 (구할) 뻔한 경험을 하였고, 되레 구해 졌다. 온라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모든 작가가 꿈꾸듯, 내 글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을 무언가를 채워 주었을 것이라 믿는다. 하루면 지나가고 묻히는 커뮤니티 글  
이지만, 그 작은 플랫폼은 나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아는 작은 비밀이었다. 이  
날 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에만 비로소 채워질 수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배웠다. 그것이 우산이든, 시간이든, 자신의 생각 또는 감정이든, 자신이 가진 어떤 하찮  
은 것일지라도 타인과 나눌 용기만 있다면 사회가 그렇게 각박해 보이지만은 않다는 것  
이다.

[교양교육원장상]

## 나누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않도록

이혜원(정치외교학과)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다. 밤 10시가 넘는 시간이었다. 안암역에 도착하니 안암 특유의 냄새가 났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겹쳐 귓가에 웅얼거렸고 그 소리들이 안암역을 병병하게 울리고 있었다. ‘난 혼자인데, 그들은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있구나.’ 그 자체만으로 그들과 나는 나뉘었다. 2번 출구로 나오니, 밤은 어두웠고, 뜨뜻미지근했고, 습했다. 아, 또다시 이 곳으로 돌아와버렸다. 아무리 멀리 가도, 하루의 끝에는 결국 안암역 2번 출구, 그 앞에 서 있다.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은 없다. 참 별거 없다. 나처럼.

간간이 있는 편의점을 지나 골목에 들어가면, 비로소 고요해진다. 아아, 가로등을 보며 생각했다. 저 빛이 내 심장을 조준했으면 좋겠다고. 탕-. 그럼 난 그 빛으로 인해 영원한 어둠 속에 안식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사실 그 빛이 날 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빛이 내 심장에 닿으면 나도 다시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빛은 나의 온 몸에 퍼져 나의 눈동자를 빛나게 하고 내 두 발에 로켓을 달아줄 테니까. 나의 광채를 찬란하게 해줄 테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턱에 눈물이 한 방울 맺혀 있다. 오른쪽 눈에서 흘러나와 내 턱 끝에 아등바등 매달려 있는 단 한 방울. 바닥까지 낙하할 용기도 없는 눈물 한 방울. 어느새 나는 나의 소생과 소멸을 동시에 바라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어릴 적 나의 꿈은 긴급구호활동가였다. 14살 때, 핸드폰 재료로 쓰이는 콜탄 채취로 인해 아프리카 삼림이 파괴되어 원숭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는 글을 본 후 갖게 된 꿈이다. 미안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집을 뺏기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었다. 18살 때는 마실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는 코끼리들을 세계지리 수업 시간에 보게 되었다. 내가 알고 있던 코끼리와 달리, 피골이 상접해있었다. 그래서 꼭 이 입시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 그 보상으로 자유를 얻게 되면 타의로 고통 받는 생명들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들과도 ‘온정을 함께 나누는 삶’을 꿈꿨다. 지구를 뒤덮을 만큼 큰 숲 속에 인간과 동물과 자연과 시가 공생하는 상상을 하며 잠에 들곤 했다. 비록 생활기록부에 적어야 하는 나의 꿈은 외교관이었지만.

그렇게 사회에 나온 지 5년 쯤, 이제 나는 그런 꿈을 꾸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의 나는 위태롭게 여기저기 걸쳐 있었던 것 같다. 내가 꿈꿨던 나눴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가르다’ 였는데, 현실에서 나눴는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을 구분하여 분류하다’ 로 쓰이고 있었다. 입학과 동시에 동기들은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로

나눠었고, 술을 잘 마시는 친구들과 못 마시는 친구들로 나뉘었다. 학회에서는 말을 잘 하는 친구와 못 하는 친구로 나뉘었다. 내가 목도한 ‘나누는 삶’은 10원 단위까지도 더 치페이를 할 때, 혹은 선배들과 친한 아이들만 시험 문제 족보를 나눠볼 때와 같은 순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눔은 필연적으로 배타성을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끼리는 함께 나누는 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제되는 순간일 수 있음을. 그래서 나눔에는 ‘함께’의 포괄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대학생활은 입시전쟁보다 몇 곱절은 아팠다. 나는 자주 무너지고 부서졌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더 이상 나는 ‘온정을 나누는 삶’을 꿈꾸지 않게 되었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정경대 학생회 프로그램에는 “상쾌한 아침”이라는 행사가 있었다. 새벽 5시에 학교에 모여 미화노동자들과 학교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함께 아침밥을 먹는 일이었다. 우리는 조별로 나뉘어 교양관 강의실 청소를 도왔다. 나는 교양관 1층에 배치되어 대문 유리창과 강의실 안 책상을 닦았다.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으면서도 팔이 아픈 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다짐했다. 이 아픔을 기억하겠다고. 누군가는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 거라고. 매일 새벽에 우리가 쓸 책상을 미리 닦아주시고, 우리가 걸을 바닥을 미리 쓸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이 날 우리는 그분들과 아침을 함께 나누었다. 시간을 나누었다. 대화를 나누었다. 웃음을 나누었다. 학생들한테 험한 일 시킬 수 없다며 쉬운 일만 주시는 그 분들의 온정을 나눠 받았다. 어쩌면, 같은 공간에서, 분리된 타인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텐데.

일회적인 연대에서 그쳤지만, 스물 세 살의 어느 아침에서 맞이한 단 한번의 상쾌함만으로도 나는 돌아갈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전까지의 나는 이곳에 적응하기에 적합한 모습만 적용하고, 그와 맞지 않는 나의 모습들은 삭제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나의 허무맹랑한 꿈들도 잊혀진 것일 터. 돈으로 모든 게 치환되는 세상에서는 돈이 없는 자는 무력해지고 돈이 되지 않는 물건은 무용해진다. 돈이 되지 않는 꿈은 무기한 연장된다. 나중으로. 우선 돈을 벌어야 공생이든, 나눔이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정말 돈이 개입하지 않고는 ‘함께 나누는 삶’은 불가능한 것일까? 나는 돈이 없을 때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싶다. 돈이 없다는 게 나누지 못하는 핑계가 되지 못하도록.

‘상쾌한 아침’ 그 후로도 나는 종종 새벽에 산보를 나가게 되었다. 해는 살짝 떠있고 바람은 시원하다. 그 때 마주치는 사람들은 대개 어르신들이다.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 가게 앞마당에 물을 뿌리고 청소하시는 분들, 자재를 열심히 나르시는 분들. 아, 어느 노부부가 운영하시는 떡집도 열려있다. 그 시간에 내가 나가는 이유는 그분들과 아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하루의 시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 햇살과 바람을 나눠 받으며, 제각기 열심히 살아있는 모습을 공유하면, 그 무엇보다 값진 생기를 얻는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탄복하게 된다. 돈이 개입하지 않고도 함께 나누는 삶은 가능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나올 때 대개 고개를 푹 숙인 채 들릴 듯 말듯한 소리로 ‘감사합니다..’하고 나왔던 나를 성찰하게 된다. 편의점이든, 마트든, 식당이든, 눈을 바라

보고 제대로 인사한 적이 있었던가? 소심하다는 핑계로, 낮을 가린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차갑게 대하진 않았던가? 어쩌면, 안암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로등을 보며 나의 소생과 소멸을 바라며 느꼈던 어둠은 내가 만든 게 아닐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기피 대상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웃음 하나라도.

[교양교육원장상]

## 밤하늘을 수놓은 아름다운 별들

김상철(생명공학부)

우리는 분명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가끔 자신이 쓸모없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다.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손이, 실패를 겪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희망이 되기도 한다. 세상에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과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힘든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다.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

15살에 처음으로 봉사를 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봉사에 관심이 없었다. 기부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았고, 연탄을 나를 만큼 힘이 세지도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마땅히 없었다. 그렇기에 봉사는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인력 부족으로 주변 학교에 봉사자 지원을 요청하면서 우리 학교에서도 봉사자를 모집했고, 학교 선생님께 제안받아 첫 봉사를 하게 되었다. 첫 봉사여서 그랬는지 조금 떨리기도 하고, 잘 해낼 수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봉사라는 말이 왠지 거창하게 느껴져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만 같았다. 봉사하게 된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어린 나이에 홀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지금 되돌아 보면 말도 안 되는 편견이지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마치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은 어둡고, 우울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린 나이에 부족한 사랑 속에서 힘들게 자라왔기에 해맑게 뛰어놀지 못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면 어떻게 다가 가야 할지 걱정이 먼저 앞섰다.

그러나 첫 봉사를 시작한 날, 밤새도록 뒤척이게 만든 근심은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달려 나왔다. 오히려 처음이라 낯을 가렸던 나에게 아이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먼저 다가왔다. 3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간단한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고, 함께 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다. 첫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내게 보여준 모습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순수하고, 장난기 가득한 귀여운 얼굴로 내게 달려오던 아이들의 모습,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니 그만하고 다른 거 하면서 놀자고 조르던 아이의 표정, 보드게임에서 이겼다고 깔깔대며 환호하는 소리...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친구의 말이었다. “선생님이 와서 좋아요. 선생님은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아이에게 내가 했던 말은 “고마워”였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한 일이라곤 그저 수학 문제를 몇 개 풀고, 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 느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웃이나 돈, 장난감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행복을 나누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웃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봉사하러 갔는데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았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어느새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고, 계속 와달라고 매달리는 아이들의 말에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면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값진 행복과 자존감을 얻었다.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나눈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나눔을 통해 행복을 얻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경험은 없을 것이다.

첫 봉사를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나눔을 통해 깨달은 지혜 덕분인 것 같다. 나눔을 통해 얻은 지혜가 삶의 이유이자 원동력이 되어 포기하지 않고, 더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 봉사를 시작했지만,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나눔 받았다. 나눔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나눈다면 받은 사람 역시 그가 가진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한다.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전한 나눔이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눌수록 나눔의 가치는 커진다. 그렇게 커진 나눔은 사람들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별들은 밤하늘이 아름다운지 모를 것이다. 그 넓은 밤하늘 속에서 내가 혼자 내는 조그마한 빛이 과연 가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별들이 함께 빛을 내며 만드는 밤하늘의 모습은 그 어느 풍경보다도 아름답다. 홀로 계속 빛나는 것도, 혼자만 밤하늘을 밝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빛을 주고받고, 함께 캄캄한 하늘을 밝히는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위기 속에서 나눔의 실천이 가장 필요하다. 내가 가장 힘들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칙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내는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함께 따뜻한 손길을 건네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이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교양교육원장상]

## 매일매일 초코바

최혜온(경영학과)

“안녕, 혹시 나 기억나?” 무료하게 인터넷 서핑을 하던 7월의 어느 새벽녘, 그 적막함을 깬 건 낯익은 발신자의 낯선 문자 한 통이었다. 졸업한 뒤로 처음 보는 그 애의 이름이었으니 대략 6개월 만이겠다. 한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과의 추억이 깃들어 있지 않은가. 그 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그 애와 보냈던 2년이라는 시간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며 처음 만났는데, 매년 서기를 도맡아 할 만큼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의 그 아이와는 달리 나는 다소 덜렁대고 호탕한 학생이었다. 성향이 달랐기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는 않았지만, 심심할 때면 나는 가만히 소설책을 읽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그러기를 몇 개월, 주로 내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걸었고 그럴 때마다 그 애는 나의 가벼운 농담 따먹기를 들으며 그저 환하게 웃어주곤 했다. 그러다 어느덧 2학기가 되었고, 개학하기가 무섭게 담임선생님께서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 4명이 한 조가 되어 또래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애와 같은 조가 되었다. 완벽한 필기 노트와는 달리, 아이러니하게도 그 친구는 공부를 못했다. 특히나 수학을 싫어했는데, 가끔씩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나와 예제를 풀라고 하실 때면 번번이 분필을 들고 머뭇대다 혼나기 일쑤였을 정도였다. 아무튼 그렇게 그 애와 나의 수학 정복기는 시작되었고, 매일 아침마다 텅 빈 교실에서 조출한 수학 교습이 이어졌다. 하루, 이틀, 한 달...날이 갈수록 그 친구의 수학 실력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향상되어 갔고, 무엇보다도 수학을 대하는 자신감이 눈에 띄게 올라가 있었다. 그 친구는 이제 수학 교과서의 예제는 물론이고 단원 마무리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중, 우리 반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2교시 수학 시간, 그 친구가 칠판 앞에 서서 수학 문제를 거뜬히 풀어내고 모두에게 풀이 과정까지 자신있게 설명한 것이다. 수학 선생님은 연신 “박수, 박수!” 소리치며 감격을 금치 못하셨고, 학급 친구들도 천장이 울릴 듯이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그 친구는 부끄러워 고개를 꼭 숙였지만, 뿌듯함이 점철된 봉긋한 광대가 그 애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도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대견한 마음에 한동안 그 여운에 젖어 있곤 했다.

그런데 그 날 이후, 결과적으로 나는 그 친구와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인지, 다음날부터 그 애는 매일매일 나에게 작은 초코바 하나씩을 주었다. 그 값이 비싸지 않다 해도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금전적 호의가 어린 나에게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간식을 줄 때면 꼭 내게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았기에 내치기에도 애매했고, 조심스레 거절을 하는 날이면 도리어 서운해 해서 어찌 할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서서히 그 친구의 질문조차도 피하게 되었다. 바쁜 일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며 교실 밖으로 나돌았고, 그 친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찾지 않게 되었다. 성향이 달랐기에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다시 멀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학년이 되었다. 그 친구는 나와 다른 반이 되었지만, 바로 옆 반이어서 자주 마주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3이 되면서 나는 천방지축 길고양이에서 얄전한 집고양이로 둔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말수도 적어지고 축 늘어진 채로 가만히 앉아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런 나에게 그 애는 슬며시 다가와 말을 건넸다. 정확히 말하자면 ‘말’이 아니라 ‘글’을 보냈다. 조그만 메모지에 ‘힘내! 넌 할 수 있어!’ 같은 희망찬 글귀를 적어 또다시 달콤한 초코바와 함께 나를 찾았다. 책상 위에 툭, 그리고 ‘파이팅’이라고 작게 읊조리는 동시에 홀연히 떠나기. 그것이 그 애의 패턴이었다. 정작 고3 일 년 동안 그 애가 날 찾은 건 서너 번 정도였지만, 그 몇 번의 쪽지를 받을 때면 괜스레 울컥울컥 밀려오는 감정을 애써 숨기기에 바빴더랬다. 몇 달이 지나, 힘겨웠던 고3 생활이 마무리되고 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정말 여러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연락이 끊겼던 친척부터 일면식도 없는 선생님까지, 많고 많은 훈훈한 말들이 오갔다. 그렇지만 끝내 그 애의 연락은 오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능 이후로는 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서, 그 애를 직접 만날 수도 없었다. 이후, 그 애는 갑자기 내 SNS 계정을 언팔로우하며 홀연히 사라졌다. 2021년 1월이었다.

2021년 7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연락이라기엔 편지에 가까웠다. 끝이 안 보이는 장문의 글이 새벽 1시에 돌연 내게 던져졌다.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너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때의 내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서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기 힘들었다. 몇 번이고 이 대화창에 들어와 글을 썼다 지우길 반복했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진심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 본다. 2학년 때부터 네게 고마운 마음이 컸다. 지금도 너의 소식을 들으며 항상 응원하고 있고 네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 나는 이 글을 읽고 쉽사리 답장할 수 없었다. 투박하고 두서없는 글에서는 그 애의 꺾꺾 눌러 담은 진심이 느껴졌고, 거기에서 나는 진정한 응원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애는 형식적인 축하의 말을 건네고 말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나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취했다. 그간 내가 지녀왔던 일방적이고도 이기적인 축하의 태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일순간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다. 지금까지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관성적으로 “축하해”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그 말을 들을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그저 하나의 사회적 의무를 처리하는 듯한 태도. 그건 그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축하라는 행위’에 불과했다. 진심어린 축하의 말, 진심어린 고마



움의 말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20살의 여름이 되어서야 갑작스레 깨닫게 되었다. 그 후로 멍하니, 한참을 고민한 뒤에야 나도 그 친구에게 답장을 보낼 수 있었다. - 나도 정말 고마워.

누군가와 고마움의 말, 고마움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다. 그 친구가 내게 매일 초코바를 준 것은, 그 애의 마음을 매일 함께 나누는 일이었다는 것을.